나주시, 빛가람동 건강둘레길 단절구간 연결통로 개통

우미린~중흥 구간 130m 연결통로 개통



나주시, 빛가람동 건강둘레길 연결통로 조성 완료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단절됐던 빛가람동 건강둘레길에 연결통로를 조성해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확보해 추가 정비를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로로 인해 보행 동선이 끊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우미린~중흥아파트 구간 건강둘레길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전액 활용해 데크 163㎡ 설치와 천연목재 울타리 147경간 조성 등으로 총 연장 약 130m의 연결통로를 조성했다. 또한 나주시는 연결통로 조성에 이어 건강둘레길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확보해 약 1.3㎞에 이르는 건강둘레길 구간을 대상으로 노면과 배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강둘레길의 보행 동선을 연결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힐링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산책로 정비와 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속 힐링 공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 2026년 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10일 수북면을 시작으로 2026년 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에 들어갔다.

박종원 군수는 이날 첫 매입 현장을 찾아 한 해 동안 벼농사에 힘쓴 농업인들과 수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매입 진행과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담양군의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 물량은 3,947톤으로, 건조벼 1,821톤, 산물벼 1,754톤, 친환경벼 249톤, 가루쌀 123톤이며 건조벼 매입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일반벼 매입 품종은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지정 품종 외의 벼가 혼입 되면 향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출하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제5회 화순군 실버노래자랑' 성료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5회 화순군 실버노래자랑' 본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실버노래자랑은 어르신들이 평소 갈고닦은 노래 실력을 선보이고, 서로 소통하며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화순군의 대표적인 노인문화 행사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예선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으며, 이를 통과한 13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 실력을 뽐냈다.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본선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특별상 등 부문별 수상자가 선정됐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의회, 제24회 의원간담회서 군정 주요 현안 점검

민간위탁 절차·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현안 개선 의견 제시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의회(의장 조일영)는 11월 10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계획, 주요 사업 추진계획 등 총 16건의 안건이 보고됐으며, 의원들은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지난 11월 3일 재위탁 선정 심의가 완료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행복과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관별 서비스 대상자 배분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준수하고, 특정 기관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개발과의 「영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보고와 사전 자료 제공 부족을 지적하며,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격거리 적용 제외 규정 삭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 기자

장성군, 올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매듭'

김한종 군수 "장성의 문화 자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

장성군이 백양사 일원에서 진행중인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오는 14일 체험 프로그램 '양이의 보물찾기'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체험 프로그램인 '양이의 보물찾기' 8회, '산사의 숲속에서' 2회, 공연 프로그램인 '법당 지은 사람들' 1회로 구성됐다.

14일에 진행되는 '양이의 보물찾기'는 초중등생 가족 10팀 내외, 약 30명이 참여하는 기후 위기 대응 탐험형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백양사 스토리텔링 즉석사진 찍기 △우리가 꾸미는 가족 텐트 △사찰 점심 공양 △양이의 보물찾기와 염주 만들기 △첼로, 바이올린 공연 △전 통음료 체험 등이 펼쳐진다.

앞선 3일에 열린 '양이의 보물찾기' 7회차에는 호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5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유학생들은 '백양사 스토리텔링'과 '우리만의 국가유산 텐트 짓기', '불화 그리기' 등을 체험했다. 10월 31일에는 공연 프로그램 '법당 지은 사람들'이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장성군 백양사에서 열린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모습. /장성군 제공

방문객들은 건축 탐험 '대웅전의 비밀', '백양사 보물찾기 골든벨', 이미지 창극 '벼꽃' 등 백양사 건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천년고찰 백양사를 주제로 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산사가 지닌 역사와 문화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발굴 및 고도화에 힘써 장성의 문화 자산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